

# 가정건강성 유형과 건강가정 프로그램 요구도 분석

김 성 심(방송대 석사) · 서 지 원(방송대 조교수)

최근 우리사회는 가족과 관련한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중년층에 있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한 가정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욕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정건강성 평가척도를 이용하여 중년층의 가정건강성을 살펴보고 건강가정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정건강성 평가척도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개발한 척도를 적용하였으며, 가족관계지표, 자원관리지표, 외부관계지표 등으로 구분하여, 각 지표를 50점 만점의 35점을 기준으로 강점인 지표(R,M,E)와 약점인 지표(r,m,e)로 나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가정건강성의 8가지 유형(RME, RmE, RMe, Rme, rME, rmE, rMe, rme)을 도출하였으며 프로그램 요구도와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년층의 가정건강성 유형을 도출하기 위한 지표별 평균은 가족관계지표 39.1(소통영역 19.4, 친밀감영역 19.7), 자원관리지표 34.0(가치영역 16.9, 자원관리영역 17.1), 외부관계지표 34.2(일-가정균형영역 16.4, 지역사회관계영역 17.8)로 모두 50점 기준의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가정건강성 수준으로 나타났다. (2) 지표별 점수를 조합한 가정건강성의 8가지 유형은 RME 138(35.2), rme 86(21.9), Rme 75(19.1), RMe 37(9.4), RmE 37(9.4), rmE 8(2.0), rMe 6(1.5), rME 5(1.3)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중년층의 건강가정 프로그램 요구도는 자원관리지표-가족자원관리 프로그램 3.64, 가족관계지표-친밀감 프로그램 3.58, 외부관계지표-지역사회관계 프로그램 3.54, 가족관계지표-소통프로그램 3.48, 자원관리지표-가치 프로그램 3.46, 외부관계지표-일,가정균형 프로그램 3.44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4)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정건강성 유형의 차이에서 취업유형, 교육수준, 경제적 만족도,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가정 프로그램 요구도 차이에서는 연령, 교육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6) 중년층의 가정건강성 유형에 따른 건강가정 프로그램 요구도의 차이에서는 외부관계유형인 E/e의 유형에서 일-가정균형 프로그램과 차이가 나타났으며( $p < .05$ ), 지역사회관계 프로그램 요구도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1$ ). 즉 외부관계에서의 강점이 많은 E 유형이 약점이 많은 e유형보다 일-가정 프로그램과 지역사회관계 프로그램 요구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가정건강성 rme유형의 중년층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책이 필요함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건강한 가정을 위해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가정건강성 유형과 건강가정 프로그램과의 연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연구도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